

교무금 책정·납부 및 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인 명동대성당은 현재 긴급하지 않은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정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주일헌금과 신자들의 의무 봉헌금인 교무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1일 기준, 본당 19,305세대 중 2,970세대만이 교무금을 책정하셨고, 이는 전체 대비 15.3%에 불과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느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교무금 책정을 못 하신 교우분들께서는 본당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책정·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경우 교무금 책정을 먼저 하고 이체하셔야만 장애(납부자 확인불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본당 재정 확충을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본당 사무실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는 작성일 기준 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 ※과년도(2017년~2019년)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신 분들은 제외
- ※2016년에 작성·제출하셨던 분들은 다시 작성·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안내는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관련' 참조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9월 5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월~금	10:00, 18:00
토요일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미사)
일요일	7:00, 9:00(영어미사), 10:00,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 ※상기 모든 미사는 '대성전'에서 봉헌됩니다.
-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성당 개방 시간 ☞ 월~토 : 09:00 ~ 20:00
☞ 일요일 : 06:00 ~ 20:0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020년 10월 18일자 발령)

10월 12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맞추어, 수정된 본당의 세부지침입니다.

- 개인 기도와 묵상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평일(월~금요일)에 한하여' 대성전을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 성인들의 유해가 모여져 있는 지하성지는 11월 8일(주일)부터 매일 아래와 같이 개방합니다.

■ 개방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11월 1일(주일)부터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없음.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그동안 중단되었던 단체 모임이나 회합 등의 활동은 지도 신부님과의 논의 후 단체장과 참석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단체장은 방역 준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그동안 중지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던 예비 신자 교리반은 대면 수업으로 정상화됩니다.

-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이름, 세례명, 연락처, 소속 본당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후 입장이 허락된 분들은 입장 전 손 세정제로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합니다.

-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서 미사 참례인원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소지(거주지) 인근 본당에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기에 미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집에서 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 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발열, 기침, 인후통, 숨 가쁨, 감기, 기관지염,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과 설사,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2주 이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면역력이 약한 초·중·고등학생